

동시통역과 시각적 응집성

- 독한 통역을 중심으로 -

안인경(한국외대)

1. 통번역과 응집성

1960년대 중반 텍스트가 새로운 언어의 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텍스트는 문장을 초월하는 문법의 단위로, 행위로, 또 인지적 절차로서 파악 되면서, 그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 방향에서든지 텍스트성, 즉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고, 또 텍스트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여겨지는 것이 텍스트의 응집성 coherence이었다.

통역과 번역은 하나의 텍스트를 기초로 하여 다른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라고 부른다. 출발텍스트는 물론이고, 도착텍스트도 텍스트다워야 하고, 그러려면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통번역의 도착텍스트가 단일 언어 텍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도착텍스트의 응집성은 도착텍스트가 텍스트다운 텍스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통번역 연구에서도 도착텍스트의 응집성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Vermeer(1978)는 모든 통번역에 적용되는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스코포스 규칙 scopos rule, 응집성 규칙 coherence rule, 충실성 규칙 fidelity rule이다. 스코포스 규칙은 모든 통번역을 통제하는 원칙은 통번역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응집성 규칙은 텍스트 내 응집성에 관한 규칙으로서, 도착텍스트는 의도한 도착텍스트 사용자들에게 '이해 가능'해야 한다, 즉 '충분히 응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실성의 규칙은 텍스트 간 응집성으로서, 스포코스 규칙과 응집성 규칙이 충족되고 나면,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Bühler(1986)는 47명의 AIIC통역사들을 대상으로 통역을 평가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준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언어적 기준으로 원어민과 같은 억양, 듣기 좋은 목소리, 유창성, 논리적 응집성, 충실한 원 메시지 의미 재현, 통역의 완성도, 정확한 문법, 정확한 전문용어 사용의 순으로 답을 얻었다. 그 후 통역 도착텍스트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어느 경우에도 “충실한 원 메시지 의미 재현”과 “발화의 논리적 응집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öhler(1998)는, Heinrichs(1981)에 따라, 응집성을 기호의 시각·청각적 차원, 의미론 차원, 화용론 차원, 통사론 차원의 응집성으로 나누어, 특정 문학작품 번역을 예로 하여 응집성 자질을 분석하였다.

Gerzymisch-Arbogast(1999)는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전제되는 지식체계와 텍스트 응집성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독자들에게 전제할 수 있는 지식과 이에 따른 텍스트 응집성이 주제가 되었다.

Gerzymisch-Arbogast(2000)는 응집성, 테마-레마, 의미동위를 포함하는 텍스트 차원의 문제들이 통역 연구에서 갖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통역을 응집성과 관련시킨 연구는 적을뿐더러, 응집성을 실제로 적용한 분석한 통역 연구는 더욱 드물다면서, 텍스트의 표층적 응집을 연구한 Schlesinger(1995)를 예로 들고 있다.

또 하나의 구체적 분석은 Kusztor(2000)에서 볼 수 있다. 그는 통역 도착텍스트가 출발텍스트보다 의미관계를 더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더 큰 응집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통역사는 대용형을 사용하기보다 같은 어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용형의 사용이 통역사에게 더 큰 인지적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비록 통번역과 관련한 응집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응집성은 통번역의 질, 도착텍스트의 특징,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의 차이 분석, 통번역 교육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Gerzymisch-Arbogast(2000: 101f.)는 번역학에서는 텍스트가 이미 번역의 단

1) 여기서는 Pöhhaker(1993): 88f.에서 재인용하였음.

위로 자리 잡은 반면, 통역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지 심리학에 의존하여 통역 절차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동시통역 결과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Gile(1991: 155)에 따르면, 그 여건이 특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역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통역의 출발점과 결과물인 텍스트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고, 이것이 어찌면 통역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역학에서 통역결과물로서의 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응집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통역학이 인지심리학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응집성이라는 개념이 분석적,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Kusztor(2000), Böhler(1998)만을 비교해보아도, 응집성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텍스트언어학 자체에서도 응집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여러 가지로 이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처럼 서로 구조가 매우 다른 언어들 간에 동시통역을 했을 때 생기는 도착텍스트의 응집성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의 응집성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응집성에 관하여

196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텍스트에 관한 연구에서 늘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응집성이다. 텍스트를 “응집적인 문장의 연쇄”²⁾라고 정의한 것만 보아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텍스트가 텍스트일 수 있는 열쇠가 응집성이라고 본 것이다. Conrad(ed.)(1985: 118)는 응집성은 “텍스트의 기본적 성격으로서, 구조가 짜여진 내용적 연관성이다. 응집성은 발화의 연쇄가 연관성 있는 텍스트로 이해되기 위한 전제조

2) Isenberg(1970: 1). 그 밖에 Steinitz(1968: 247), Steinitz(1969: 146), Dressler(1970: 64ff), Harweg(1968: 11) 등도 참조.

건”이라고 하고 있다.

‘응집성’과 함께 쓰이는 용어로서 ‘응결성 cohesion’도 있다. 요즘 응결성은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관성(대명사화, 접속, 음운, 형태, 어휘 현상)으로 보고, 응집성은 텍스트의 내용적 연관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de Beaugrande/Dressler(1981)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가 통일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쓰였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Bellert(1970)는 응집성을 텍스트 내적 자질로만 본 것이 아니고,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의미의 연관성과 청자/독자가 수신하고 있는 텍스트와 관계없는 세계 지식에 기초하여 만들어내는 의미의 관계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응집성은 수신자가 발화를 수신하고 내리는 추론과 수신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지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Halliday/Hasan(1976)은 어휘적, 문법적 수단에 의한 연결에 주목하면서, 요즘 흔한 용법과는 반대로, 이것을 cohesion 응결성이라고 불렀다. Brown/Yule(1983)은 응집성 coherence와 관련하여 대응형, 역양 등 문장을 초월하는 표준 구조들에 대한 지식을 중요시하였다. Petöfi/Sözer(1989)는 응집성을 텍스트에 나타난 사태들 간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로마어권과 슬라브어권에서도 응집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³⁾ 역시 통일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응집성은 텍스트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처럼 이에 대한 이해와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Brinker⁴⁾는 응결성과 응집성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여 통합적인 응집성 개념을 주장한다. 그는 형태적-통사적으로 나타나는 명시적 응집의 형태와 의미-인지적 응집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포괄적인 응집성 개념을 그 세 측면에 따라 문법적/주제적/화용적/인지적 응집성, 또는 드러난/숨은 응집성 등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다. Böhler(1998: 113f.)도 응집성은 여러 차원의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이므로 이같은 분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Brinker(2000)에서는 응집성을

3) Pérennec(2000: 148ff.), Mazur(2000: 157) 참조.

4) Brinker(2001: 18), Anm. 18.

- 1) 문장과 그 요소들 간에 나타나는 문법적 차원의 응집성,
- 2) 명제, 테마 등 주제 단위들 간에 나타나는 주제적 차원의 응집성,
- 3) 화행들 간에 나타나는 화용론적 차원의 응집성

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응집성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경계가 불분명한 응결성과 응집성이라는 두 개념을⁵⁾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3. 분석에 앞서

텍스트언어학에서 응집성과 관련하여, ‘통사적’, ‘문법적’부터 ‘의미적’, ‘내용적’, ‘논리적’, ‘화용론적’, ‘주제적’, ‘인지적’ 까지 이르는 수식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응집성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응집성이라는 것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시각적 응집성 *perspective coherence*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은 종래에 수식어들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아마도 단일 언어 텍스트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에서 응집성을 연구할 때 그 본보기로 삼는 텍스트는 단일 언어 텍스트이다. 즉 단일 언어로 된 텍스트 생산, 생산물, 수용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응집성을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동시통역의 결과물인 도착텍스트이다. 도착텍스트는, 단일 언어 텍스트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출발텍스트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동시통역 도착텍스트의 경우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도 출발텍스트 및 출발언어의 구축을 많이 받게 된다. 독일어와 한국어처럼 구조가 매우 다른 언어간에는 이러한 구축이 도착텍스트에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언어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함은 우선 어순과 깊은 관계가 있다. 어순을 다루는 것은 언어학에서 통사론이라는 하위 분야이며, 통사론은 마치 언어의 표층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어순은 단순한 문법적 차원만의

5) 이에 대해서는 Rickheit/Schade(2000), Bußmann(²1990: 388) 참조.

문제는 아니다. 어순은 의미, 어휘와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 언어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발화를 통해 특정한 효과를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출발 언어의 어순에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동시통역에서는 그런 점에서 통역의 결과물인 도착텍스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Kautz(2000: 345, 341)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연사의 연설 방식이나 내용 뿐 아니라, 출발어의 언어 구조가 동시통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S-V-O의 규칙적 선형적 구조를 갖는 영어나 중국어에서 출발하여 통역하는 것이 어형과 어순에 변화가 많은 독일어를 출발언어로 하여 통역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역 교수법도 언어쌍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상이한 어순과 그로 인한 기억력의 부담과 관련하여, 통역사는 장시간 기억에 저장해 두었던 지식을 동원하여 들은 것을 분석하고, 도착어로 전환 가능한 의미를 밝혀낼 때까지 텍스트 내용을 단시간 내지 초단시간 기억 속에 저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밝혀낸 '의미단위'의 순서를 뒤집어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사가 먼저 말한 '의미단위'를 도착어의 언어 논리 및 형식에 맞추어 통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Kalina(1998: 25, 114)도 통역에서 언어적인 것이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역할을 하며, 언어쌍에 따라 통역사는 언어쌍과 통역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구속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어순이 유사한 언어 간 통역과 어순이 서로 다른 언어 간 통역에는 서로 다른 전략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수신자가 텍스트의 진행에 관해서 갖게 되는 시각 perspective에 통역의 도착텍스트가 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텍스트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갖는다. 또한 수신자는 수신한 것을 기초로 추론하여 앞으로의 텍스트 전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는다. 이것은 텍스트의 내용 뿐 아니라, 내용을 담는 형식의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동시통역에 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통역사가 최종 수신자의 텍스트 생산자가 된다. 그러나 통역사는 연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텍스트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없다. 통역사가 갖게 되는 시각은, 특히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다. 통역사에게 통역을 위한 자료가 주어진 경우에는,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

적 차원에서보다는 문장 내의 진행,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진행 등 미시적 진행과 관련하여 통역사의 시각이 매우 제한되게 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시각 문제이다. 통역사는 자신이 스스로 텍스트에 대한 시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사가 갖는 시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연사의 텍스트 진행과 관련된 시각이 통역사에 의해 변형될 때,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된다. 이러한 시각적 응집성의 손상은 독일어와 한국어처럼 출발어와 도착어 간 구조 차이가 클수록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시각적 응집성 손상의 예

독한 동시통역에서 출발 텍스트에 나타난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소유격을 수반하는 명사구, 전치사구, 복합문, 형용사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모든 종류의 수식어 등이다. 이제 조건절과 관계절을 예로 하여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조건절

독일어에서는 조건절이 종속절로서 주절의 뒤에 오는 것이 표준 어순이다. 표준 어순이라는 것은 텍스트에서 앞뒤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표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조건절이 앞에, 주절이 뒤에 오는 것이 표준 어순이다. 따라서

(1G) ① Der Chef wird Sie befördern, ②wenn Sie die Lösung für dieses Problem finden.

- 6) 독어학자들은 ‘조건문’, ‘관계문’과 같은 용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어 문법 용어와 같이 ‘조건절’, ‘관계절’ 등으로 쓴다. 아래에서 ‘주문장’, ‘부문장’도 ‘주절’, ‘종속절’로 한다.

라는 독일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IK) ②당신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①사장님이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와 같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ID)를 동시통역할 때는 독일어의 어순에 맞추기 위하여 (IK-1)처럼 도착텍스트에서 독일어와 같은 어순을 택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장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통역할 때 어순을 굳이 독일어 어순에 적용시키지 않아도 통역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선 이렇게 간단한 예를 가지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Kautz (2000)이 통역사는 연사가 먼저 말한 ‘의미단위’를 도착어의 언어 논리 및 형식에 맞추어 통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사실 이 말은 많은 경우에 맞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IG)와 같은 기본적 구조를 가지면서 문장이 매우 길거나, 여러 층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렇게 복잡할 경우에는 출발어의 어순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통역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IK)를 그와 같이 출발어의 구조에 적용시켜서 통역의 편리 내지는 가능성을 도모한다면, (IK-1)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IK-1) ①사장님이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②당신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면.

명제만을 따진다면 (IK-1)은 (IK)와 같다. 그러나 (IK-1)은 (I)과 달린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수신자는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마치 사장이 승진시키는 것이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며, ①의 조건절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구조는 특별한 문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K-1)에처럼 조건절이 다음에 나오게 되면, 수신자의 기대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사가 일부러 그와 같은 수신자의 기대를 깨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그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어 irony적으로 표현한

다든가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1G)에 나타난 원래 연사의 발화 목적은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도착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이 미완성형이 되어 연사가 의도하지 않은 일상 언어적 내지는 시적 문체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Dressler⁽³⁾(1991: 65)는 통번역에서 출발텍스트의 발화수반력을 인식하고 도착어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발화효과를 인식하고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물론 도착텍스트의 두 번째 문장을 (1K-1)처럼 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것이 통역 교육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1K-1)의 두 번째 문장을 종결형으로 끝내는 방법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다.

(1K-2) ①사장님이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②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말입니다.**

(1K-3) ①사장님이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②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승진시킬 것입니다.**

(1K-2)와 (1K-3)에서는 각각 ‘말입니다’를 써서 문장을 종결형으로 끝내거나 앞 문장의 술어인 ‘승진시킬 것입니다’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종결형으로 끝남으로써 문장 미완성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없었지만,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1K)와는 다른 문체 효과를 나타내며, 술어 반복도 (1G)의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1G)는 인위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예이지만, 이제 실제로 통역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예를 들어보겠다. 이 예는 통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왜 출발어의 구조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가를 보여줄 것이다.

(2G) (Morgen wird das letzte Spiel der Fußballweltmeisterschaft auf koreanischem Boden statt finden. Da liegt es nahe, auch an die

völkerverbindende Rolle des Sportes zu denken. Fröhliche und bunte Spiele hat Ihr Land zusammen mit seinen japanischen Nachbarn organisiert. Von dieser gemeinsam ausgetragenen Weltmeisterschaft geht eine Botschaft der Versöhnung aus:)

① Die Botschaft ②heißt, ③dass es im gegenseitigen Respekt und in Kenntnis einer gemeinsamen, oft leidvollen Geschichte ④möglich ist, ⑤ gutnachbarschaftliche Beziehungen zu gestalten, ⑥wenn der Wille dafür vorhanden ist.

(Das ist weltweit als ein Signal der Hoffnung verstanden worden. Ich wünsche mir für Sie, dass dieser Impuls auch über das Ende der Weltmeisterschaft hinaus erhalten bleibt.)⁷⁾

(2K) (내일은 한국 땅에서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가 있습니다. 민족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웃 일본과 함께 즐겁고 화려한 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공동 개최한 이 월드컵대회는 화해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①그 메시지는, ⑥의지만 있다면, ③서로 존중하고 많은 부분 고통으로 점철된 공동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⑤선린관계를 엮어나갈 ④수 있다는 ②내용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자극제가 월드컵대회 종료 이후에도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G2)의 예는 (K2)처럼 번역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⁸⁾ 그런데 ⑥이 조건절로서 출발텍스트에서는 독일어의 표준 어순에 따라 주절의 뒤에 있다. 그런데 통역사가 조건절이 (2K)에서처럼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역사는 뒤에 조건절이 온다는 사실도 미리 알 수 없으며, 또 조건절이 나온다고 기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 조건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휴지가 너무 길어

7) 문단 처리는 예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

8) 이 논문의 나오는 예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한 것으로, 예가 시각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지고, 또 기억력은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③부분이 어순이나 어휘처리가 까다로워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통역사는 앞에 (1)의 예에서 본 것처럼, 조건절을 출발텍스트에서처럼 뒤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2K-1) ①그 메시지는, ③서로 존중하고 많은 부분 고통으로 점철된 공동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⑤선린관계를 엮어나갈 ④수 있다는 ②내용입니다. ⑥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2K-2) ①그 메시지는, ③서로 존중하고 많은 부분 고통으로 점철된 공동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⑤선린관계를 엮어나갈 ④수 있다는, ⑥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②내용입니다.

(2K-1)은 (1K-2)처럼 ‘말입니다’를 사용하였고, (2K-2)는 (1K-3)처럼 술어를 반복하였다. 이 술어 반복은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이탤릭체로 쓴 부분이 보여주듯이, 대응형을 사용한 반복이다. 이렇게 되면 예(1)에서 설명했던 시각적 응집성 손상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 예에 발췌된 부분에서 연사는 성공적인 2002한일 월드컵대회가 한일 간 화해와 선린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말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한일관계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일에 대하여 제 삼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착텍스트에서 조건절을 뒤에 붙임으로써, 연사의 의도와는 달리 반어적인 뜻으로 들리게 된다면 통역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텍스트 종류에 비추어볼 때, (2K-1)이나 (2K-2)같은 문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점 또한 텍스트에 대한 수신자의 기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예 (3)에서는 조건절 자체는 짧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절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독한 동시통역에서 그러한 조건절을 주절 앞에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조건절은 종속절로서 절의 주어가 문장 끝에 오게 되므로,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은 이중으로 커지는 것이다.

4.2. 관계절(relative clause)⁹⁾

독일어에서 관계절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종속절로서, 선행사의 뒤에 놓인다. 독일어의 관계절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prenominal clause*이다.¹⁰⁾ 따라서 독한 번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절을 관형절로 번역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모든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놓이므로, 관계절은, 독일어와는 반대로, 피수식어의 앞에 오게 된다.

- (3G) ①Jede Dolmetscherin, ②die zu Hause einen Zwergschnauzer hat, ③ ist in ihrem Beruf erfolgreich.
- (3K) ②집에서 미니어처 슈нау저를 키우는 ①모든 통역사는 ③자기 직업에서 성공한다.
- (4G) ①Die Konferenzdolmetscher, ②die von einer Sprache in eine andere simultan dolmetschen können, ③werden von vielen Leuten bewundert und beneidet.
- (4K) ②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①회의통역사들은 ③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받는다.

예 (3)과 (4)에서 독일어 출발텍스트의 관계절들이 한국어에서 관계관형절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도착텍스트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동시통역 상황에서는, 관계절이 짧고 단순하지 않으면, 통역사가 관계절을 다 들은 후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형절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본 조건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억력의 부담이 과중해지고, 긴 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통역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도착텍스트의 어순과 그에 따른 정보의 배열을 독일어와 유사하게 맞추어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나가게 되면 매우 어색해지는 관계절이 있고, 그보다 덜 어색하거나 자연스러운 관계절도 있다.

그것은 관계절 중에 제한적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부가적 성격을 갖는 것도

9) 안인경(2002) 참조.

10) Kim Bo-Young(1966: 36ff), Lehmann(1984: 70ff).(일본어 관계절에 대한 설명) 참조.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종류의 관계절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다. 선행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동일시하는데 필요한지의 여부(Behagel(1928: 767), Eisenberg(1988: 229), 선행사의 지시대상을 더 이상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Lehmann(1984: 270), 선행사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지, 느슨한지(Glinz(1994: 736) 등이 제한적 관계절과 부가적 관계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한적, 또는 부가적 관계절의 명칭과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각 관계절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Glinz(1994: 739)는 제한적, 부가적 관계절의 구분은 문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구성에서 텍스트 단위를 다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신자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한적이냐, 부가적이냐 하는 것은 문법적 현상이 아니라 텍스트 구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는 통역 도차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의 목적은 관계절의 유형을 분류, 정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독한 동시통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과 관련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관계절의 종류를 설명하는 일반적 기준, 즉 관계절이 선행사의 동일시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은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시간의 압박을 받는 동시통역에서 관계절의 생략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발화자가 사용한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을 청자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가 지시하는 대상의 외연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동일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어에서는 수식어로, 즉 관형절로 처리해야 자연스럽고, 별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된다. (3)이 그 예가 된다.

(3G) ①Jede Dolmetscherin, ②die zu Hause einen Zwergschnauzer hat, ③ ist in ihrem Beruf erfolgreich.

(3K) ②집에서 미니어처 슈нау저를 키우는 ①모든 통역사는 ③자기 직업에서 성공한다.

(3)에서 관계절을 없앤다면

‘모든 통역사는 자기 직업에서 성공한다’

가 되어 문장이 다른 뜻을 갖게 된다. (3G)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관계관형절②를 피수식어① 앞 이외의 다른 위치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색할 것이다. 가령 (3K-1)은 (3G)와 전혀 다른 뜻이 된다.

(*3K-1) ①모든 통역사는 ②집에서 미니어처 슈나우저를 키우는데, ③자기 직업에서 성공한다.

반면에 부가적 관계절의 선행사가 지시하는 대상(referent)은 관계절 없이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고, 부가적 관계절은 단지 그 대상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가적 관계절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결정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예(4)에서 관계절이 없어지고 (4')처럼 되어도 문장의 뜻이 결정적으로 왜곡되지는 않는다.

(4G') ①Die Konferenzdolmetscher ③werden von vielen Leuten bewundert und beneidet.

(4K') ①회의통역사들은 ③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받는다.

Kim Bo-Young(1996)은 독일어 관계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요약했듯이, 독일어의 제한적 관계절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수식어로 번역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가적 관계절은 원칙적으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로 번역될 수 있으나, 주문장에서 떼어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이나 부사절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2.1. 제한적 관계절이 나올 때

위에서 본 것처럼, 독일어의 제한적 관계절은 한국어로 옮겨질 때 수식어로서 피수식어의 앞에 와야 한다. 만약 부가적 관계절처럼 부사절로 처리하거나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떼어내면, 주절 부분이 의의 있는 문장이 되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5G) ①Der Gewalt vorzubeugen und von Gewalt betroffenen Frauen Schutz und Hilfe zu bieten ②sind ③Aufgaben, ④die der Staat besser als bisher wahrzunehmen hat.

(5K) ①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보호와 도움을 주는 것은 ④국가가 지금까지보다 더 잘 수행해야 하는 ③과제 ②입니다.

예(5)에서 관계절을 ‘Aufgabe/과제’의 수식어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5K-1)과 같이 관계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K-1) ①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보호와 도움을 주는 것은 ③ (하나의) 과제 ②입니다. ④ 이 과제는 국가가 지금까지보다 더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5K-1)의 첫 번째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들은 수신자는 연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장 자체는 비문이 아니다. 그러나 수신자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착텍스트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스스로 융합시켜, 전체의 뜻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듣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수정해야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수신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해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일 언어 텍스트의 수신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 및 추론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한국어 도착텍스트가 문장 내지는 텍스트 진행을 불가피하게 왜곡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수신자는 텍스트 진행에

따른 자신의 분석, 추론 과정에서 뒷걸음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상당히 손실된 것이다.

예 (5)는 비교적 짧은 제한적 관계절이지만, 제한적 관계절을 주절로부터 떼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6G) [...] Vieles von dem, was wir gerne einfordern, nämlich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Integration, bei gleichzeitigem Erhalt der kulturellen und gesellschaftlichen Eigenheit, ist heute tatsächlich europäische Realität. Den Übergang von einem Staat zum anderen markiert oft gar kein Grenzbeamter mehr, sondern nur die Veränderung im Strassenbild, der Bauweise, der Kultur. Es gibt keine Grund, zufrieden die Hände in den Schoß zu legen. Reformen der Institutionen sind notwendig, um die angestrebte Erweiterung der Union zu meistern, ohne an Handlungsfähigkeit einzubüßen.

①Aber ②es gibt viele Gründe für Respekt gegenüber der politischen Weitsicht und Lebensleistung ③der Verantwortlichen, ④**die nach der Katastrophe des Zweiten Weltkriegs eine neu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schufen.**

(Ich bin überzeugt, dass Europa insoweit Vorbild sein kann. Auch in dieser Hinsicht lohnt sich der Weg auf den alten Kontinent[...])

(6K) [...] 우리가 즐겨 요구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 즉 문화적, 사회적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경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국경에 국경 담당 공무원이 없고, 거리 경치, 건물 양식, 문화만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만족에 젖어 양 손을 놓아도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유럽의 행동력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추진 중인 유럽 확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①그러나 ④**이차대전 이후 새로운 유럽 평화질서를 창출한** ③책임자들의 ②긴 정치적 안목과 일생에 걸친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구대륙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6)에서는 (6K)와 같이 통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절 ④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통역한 후 ③과 ②를 통역하기에는 기억력이 큰 부담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②안에는 독일어의 전치사구와 소유격이 복잡하게 들어있는데, 이것들 역시 수식어로서, 한국어의 수식어들과는 반대로, 독일어에서는 각각 피수식어의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이 이미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것을 다 기억했다가 뒤의 것을 먼저 통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남는 방법은 ①②③을 먼저 통역하고, 관계절 ④를 떼어 따로 통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령 (6K-1)과 같이 될 것이다.

(6K-1) ①그러나 ③책임자들의 ②긴 정치적 안목과 일생에 걸친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④ (그들은) 이차대전 이후 새로운 유럽 평화질서를 창출했습니다.

(6K-1)의 첫 번째 문장은 (5K-1)만큼 비문법적이고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다. 출발텍스트 관계절에 해당하는 부분인 ④가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되었다. 이 두 번째 문장도 어색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들은 수신자는 텍스트 앞 부분에서 수신한 내용을 되짚어보아도 ‘책임자’를 동일시 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장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은 연사의 의도가 아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에 있다. 제한적 관계절이 독립되어 나오므로써, 두 번째 문장에서 ‘그들’, 즉 ‘책임자들’이 테마화된다. 따라서 수신자는 이 텍스트가 ‘책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될 것과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동시통역에서 관계문을 인위적으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Kim Bo-Young(1996: 81)¹¹⁾은 제한적 관계절은 주절에 종속되어, 주절에 담긴 정보의 하위 정보를 담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계절은 종속절로서, 거기에 담긴 정보는 텍스트에서 다시 주제로 삼지 않는다고

11) Bartsch(1978: 8), Hartmann(1984: 313) 참조.

하였다. 바로 (6)에서는 관계절을 도착텍스트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독립시킴으로써, 거기에 담긴 정보가 주제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텍스트의 진행은 물론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다. 통역을 통해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한 동시통역에서는, 그 밖에도 구조가 다른 언어들 간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추측되지만, 제한적 관계절 때문에 텍스트의 진행이 어색해지고, 문체가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는 제한적 관계절과 선행사가 계층적 질서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보 단위를 이루는데,¹²⁾ 통역에서 하위 정보를 동등한 정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장의 형식이 정보 배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정보 배열은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부가적 관계절이 나올 때

앞서 나온 예 (4)를 보면 부가적 관계절이 나올 때는 제한적 관계절이 나올 때와 같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Kim Bo-Young(1996)도 독일어의 부가적 관계절을 한국어로 독립된 문장이나 부사절 등으로 번역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

(7G) ([...] Erst mit der Vereinigung, nachdem die Menschen gefordert sind, sich um sich selbst zu kümmern und für sich in der Fülle der Möglichkeiten einen eigenen Weg zu finden, äußert sich auch die vorhandene Grundstörung in entsprechenden Symptomen.)

①Das ②erklärt auch, ③weshalb ④ostdeutsche Menschen, ⑤denen es materiell wesentlich besser geht als zu DDR-Zeiten, [...]⑬ ⑥nicht unbedingt glücklicher und zufrieden sind.

Sie leiden an den neuen Lebensformen ...

(7K) [...] 통일 이후,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야 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기본적(심리적)

12) Kim Bo-Young(1996: 126).

13) 원래는 또 다른 관계절이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생략했음.

장애가 그에 상응하는 증후군으로 나타났다.

①이는 ⑤동독 시절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있는 ④동독 사람들이 [...]⑥ 왜 꼭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지 않는가②도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7G)의 부가적 관계절의 내용을 (7K)에서처럼 관형절로 처리할 수 있지만, (7K-1)에서처럼 양보의 뜻의 부사절로 처리해도 텍스트에서의 전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텍스트의 응집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7K-1) ①이는 ④동독 사람들이 ⑤동독 시절보다 물질적으로 더 살고 있는 데도 [...] ⑥ 왜 꼭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지 않는가②도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8G) [...] ①Den Westdeutschen ②hat es an Respekt gefehlt ③gegenüber ④ihren östlichen Landsleuten und ⑤deren Biographien, ⑥die gezeichnet waren von vierzig Jahren autoritärer Parteiherrschaft und von den Folgen des zweiten Weltkrieges, denen sie ohne ausländische Hilfe - zum Beispiel dem in Westdeutschland wirksamen Marshallplan - ausgesetzt waren.

Diese Respektlosigkeit hat dazu geführt, dass sich, aus verkürzter Sicht abegeschätzt, nur arme und reiche Deutsche gegenüberstanden.[...]

(8K) [...]①서독 사람들은 ④동쪽의 동포들과 ⑥40년간의 전체적 일당 독재와 이차대전적 결과를 마살플랜과 같은 외국의 도움 없이 그대로 겪어야 했던 ⑤그들의 삶의 역사에 ③대한 ②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존경심의 결핍은 짧은 안목으로 단지 가난한 독일인과 부유한 독일이라고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통역에서 (8G)의 관계절⑥을 (8K)에서 같이 관계관형절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⑥ 안에 또 하나의 관계 구조가 들어 있고, 삽입구도 들어 있어 ⑥자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컨대 (8K-1)처럼 관계절을 떼어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8K-1) [.....] ①서독 사람들은 ④동쪽의 동포들과 ⑤그들의 삶의 역사에 ③대한 ②존경심이 없었습니다. ⑥ 그들은 40년간의 전체적 일당 독재와 이차대전의 결과를 마살플랜과 같은 외국의 도움 없이 그대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경심의 결핍은 짧은 안목으로 단지 가난한 독일인과 부유한 독일이라고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

(8K-1)처럼 관계절을 독립시켜 통역하면, 관계절이 들어 있는 문장 자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텍스트의 진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8K-1)처럼 통역하면 ⑥다음에 동독인들의 삶의 역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는 존경심의 결핍을 주제화하고 있어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파괴된 것이다. 이것은 제한적 관계절을 통역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부가적 관계절도 제한적 관계절과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하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가적 관계절이 담는 하위정보는 제한적 관계절이 담는 하위 정보보다 여러 가지 많은 논리적 관계를 주절의 내용과 맺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7K-1)이나 그와 견줄만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7)과 같은 경우, 부가적 관계절을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사절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출발어에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사는 관계절이라는 형식을 택했다. 그러한 선택에는 텍스트의 진행, 정보의 전후 관계, 상하 관계가 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문체가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동시통역을 통해 그러한 관계들이 손실되거나 왜곡된다면, 그것은 Dressler(31991: 65)이 말하는 통번역을 통해 발화수반력, 발화효과의 손실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동시통역을 통해 출발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이 손상되고, 문체가 왜곡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도착텍스트로 들은 통역의 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구조가 매우 다른 언어 간에는 동시통역을 통한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의 부분적 손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통역이 불가능하다거나, 동시통역은 정보를 무질서하게 배열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에서는 통역할 수 있는 방법의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실제 통역 상황에서는 통역사는 억양, 문장 형식의 변화, 요약, 특정 부분의 생략, 첨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착 텍스트의 시각적 응집성 손상이나 문체 왜곡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텍스트 응집성 손상의 완화나 응집성 회복은 통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신자도 이에 기여한다고 추측된다. 이 글에서 본 텍스트 응집성 손상이나 문체 왜곡 등은 도착텍스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텍스트의 문장 구조를 도착어에서 맞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통역을 듣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다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방해될 뿐 아니라 문체가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자는 (6K-1)이나 (8K-1)과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인 혼란을 머리 속에서 텍스트 이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곧 전환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통역사는 수신자가 그러한 전환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려 노력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역사와 수신자간에는 출발텍스트의 연사와 수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Grice(1975)가 말하는 의미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절과 관계절을 예로 구조적 문제로 인한 텍스트 응집성의 손상을 설명하였지만, 독한 동시통역에서는 이외에도 구조적 문제가 되는 다른 많은 경우들이 있다. 동시통역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또 학

생이 그와 같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안인경 (2002):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독한 동시통역에서의 관계문 문제. *텍스트언어학* 11, 183-212.
- Bartsch, Renate (1978): Satzreihung, Satzgefüge oder Adverbialkonstruktion? Über pragmatische und kontextuelle Unterschiede zwischen semantisch gleichwertigen Aussagen. In: Hartmann, D. & Linke, H. & Ludwig, O.(eds.): *Sprache in Gegenwart und Geschichte*, Köln Wien, 1-18.
- de Beaugrande, Robert A. & Dressler, Wolfgang(1981): *Intorduction into text linguistics*. New York.
- Behagel, Otto (1928): *Deutsche Syntax. Eine geschichtliche Darstellung. Bd. III (Die Satzgebilde)*, Heidelberg.
- Bellert, Irena (1970): On a Condition of the Coherence of Texts. In: *Semiotica* 2, 335-363.
- Böhler, Christiane (1998): Die Analyse von Kohärenzmerkmalen am Text. Modell eines literarischen Übersetzungsvergleichs, angewandt und untersucht am Beispiel von Thomas Bernhards Roman "Holzfällen. Eine Erregung" und dessen Übersetzung ins Italienische. In: Holzer, P. & Feyrer, C.(Hgg.)(1998): *Text, Sprache, Kultur: Festschrift zum 50jährigen Bestehen des Instituts für Übersetzer- und Dolmetscherausbildung der Universität Innsbruck*. Frankfurt am Main; BerlinBern; New York; Paris; Wien, 109-123.
- Brinker, Klaus (2001):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 Brinker, Klaus (2000): Textstrukturanalyse. In: Brinker et al. (eds.) (2000): 164-175.
- Brinker, Klaus & Antos, Gerd & Heinemann, Wolfgang & Sager, Sven F.(eds.) (2000): *Text- und Gesprächslinguistik.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eitgenössischer Forschung 1. Halbband(Linguistics of Text and Conversation.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Vol. 1)*. Berlin; New

York.

- Brown, Gillian & Yule, Georg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 Bühler, Hildegund (1986): Linguistic (semantic) and extra-linguistic (pragmatic)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rs. In: *Multilingua* 5 (1986)4, 231-235.
- Bußmann, Hadumod (²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 Conrad, Rudi (ed.) (1985):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licher Termini*, Leipzig.
- Dressler, Wolfgang (1970): Modelle und Methoden der Textsyntax. In: *Folia Linguistica* 4, 64-70.
- Dressler, Wolfgang(³1991): Der Beitrag der Textlinguistik zur Übersetzungswissenschaft. In: Kapp, Volker(ed.): *Übersetzer und Dolmetscher*, Tübingen.
- Eisenberg, Peter (²1989):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 Gerzymisch-Arbogast, Heidrun (1999): Kohärenz und Übersetzung: Wissenssysteme, ihre Repräsentation und Konkretisierung in Original und Übersetzung. In: Gile, D. & House, J. & Rothkegel, A.(eds.)(1999), 77-106.
- Gerzymisch-Arbogast, Heidrun (2000): 'Text-bound interpretation' : Zum Aufschlußwert der Textdimension für die Dolmetschforschung. In: Schmitt, P. A. (Hg.)(2000): *Paradigmenwechsel in der Translation. Festschrift für Albrecht Neubert zum 70. Geburtstag*, Tübingen, 101-119.
- Gile, Daniel (1991): Methodological Aspect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search. In: *Target* 3(2), 153-174.
- Gile, Daniel & House, Juliane & Rothkegel, Annely (eds.) (1999): *Wege der Übersetzungs- und Dolmetschforschung*, Tübingen.
- Glinz, Hans (1994): *Grammatiken im Vergleich. Deutsch - Französisch - Englisch - Latein. Formen - Bedeutungen - Verstehen*, Tübingen.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lecture notes. Partly published in: Cole, P./Morgan, J. L.(eds.):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3)*, New York, 41-58.
- Halliday, Michael A.K. & Hasan, Ruqaiya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 Hartmann, Dietrich (1984): Reliefgebung - Informationsvordergrund und Informationshintergrund in Texten als Problem von Textlinguistik und Stilistik. In: *Wirkendes Wort* 34, 305-323.
- Harweg, Roland (²1979):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München.
- Heinrichs, Johannes (1981): *Reflexionstheoretische Semiotik. 2. Teil: Sprachtheorie*.

- Philosophische Grammatik der semiotischen Dimensionen*, Bonn.
- Kalina, Sylvia (1998): *Strategische Prozesse beim Dolmetschen: theoretische Grundlagen, empirische Fallstudien, didaktische Konsequenzen*, Tübingen.
- Kautz, Ulrich (2000): *Handbuch Didaktik des Übersetzens und Dolmetschens*, München.
- Kim, Bo-Young (1996): *Die deutschen Relativsätze und ihre Entsprechungen im Koreanischen*, Frankfurt am Main.
- Kusztor, Mónika (2000): Darstellung von Kohärenz in Original und Verdolmetschung. In: Gile, D. & House, J. & Rothkegel, A. (eds.) (1999): 19-44.
- Lehmann, Christian (1984): *Der Relativsatz*, Tübingen.
- Mazur, Jan (2000): Textlinguistik im slawischen Sprachraum. In: Brinker et al. (eds.) (2000): 153-163.
- Pérennec, Marie-Hélène (2000): Textlinguistik im romanischen Sprachraum. In: Brinker et al. (eds.) (2000): 145-153.
- Pöschhacker, Franz (1993): "From Knowledge to Text: Coherenc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ranslation and Knowledge. In: Gambier, Y. & Tommola, J. (eds.) (1993): *Translation and Knowledge*, SSOTT IV, Univ. of Turku: Center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87-100.
- Rickheit, Gert & Schade, Ulrich (2000): Kohärenz und Kohäsion. In: Brinker et al. (eds.)(2000): 275-283.
- Schlesinger, Miriam (1995): Shifts in Cohes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The Translator* 1 (1), 193-219.
- Steinitz, Renate (1974): Nominale Pro-Formen. In: Kallmeyer, W. et al. (eds.) (1974): *Lektürekolleg zur Textlinguistik, Bd. 2: Reader*, 246-265.
- Steinitz, Renate (1969): *Adverbialsyntax*, Berlin.
- Vermeer, Hans-Jürgen (1978): Ein Rahmen für eine allgemeine Translationstheorie. In: *Lebende Sprachen* 23, 99-102.

Zusammenfassung

Perspective Coherenc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 with Reference to German-Korean Interpreting -

Ahn, In-Kyoung(HUF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f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are very different, interpreters have to wait before being able to reformulate the source text segments into a meaningful utterance in target language. It is inevitable to adapt the target language structure to that of the source language so as not to unduly increase the memory load and to minimize the pause. While such adaptation enables simultaneous interpreting, it results in damaging the perspective coherence of the text. Discovering when such perspective coherence is impaired, and how the problem can be relieved, will enable interpreters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This paper analyses the reasons for perspective coherence damage by looking at some examples of German-Korean simultaneous interpreting.

[검색어] 시각적 응집성, 응결성, 출발텍스트, 도착텍스트, 조건절, 관계절, 관형절
perspective coherence, cohesion, source text, target text, conditional clause,
relative clause, prenominal clause

안인경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ahnik@hufs.ac.kr